



글로벌 청소년 문화 디지털 세대의 이해

# 목차

- 3 도입
- 5 종교에 대한 태도와 행동
- 16 청소년들의 경험, 고민과 방황
- 25 디지털 연결성과 그 영향
- 33 정체성과 관계
- 44 영향 인자와 조언의 창구
- **53** 롭 호스킨스 (Rob Hoskins) 원호프 (OneHope) 대표의 편지
- **54** 원호프 (OneHope) 소개
- 54 조사 방법
- 55 데이터 수집
- 56 용어

### 도입

1995-2012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되는 전 세계 청소년 및 청년 인구는 세계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0억명에 달합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자라온 환경의 영향으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들 글로벌 세대의 습관, 고민과 방황,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명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경과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본 연구가 세계 청소년/청년 세대의 신앙에 대해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고 자부합니다. 세계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수백 개의 정보 항목들을 통해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들여다보고,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 개국



14 개 언어



디지털로 연결된



13-19 세 8,394 명의 청소년 (만 나이 기준;



70 개 문항 설문서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1,275명)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2,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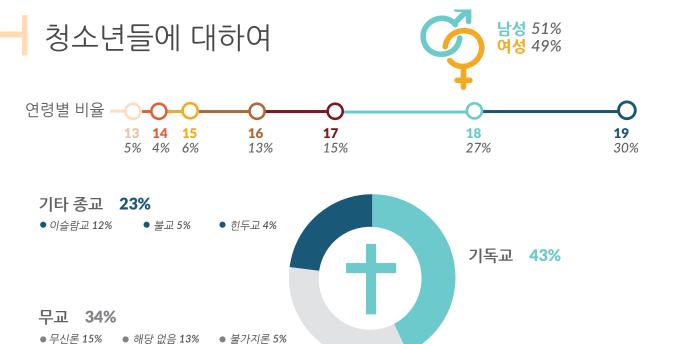
유라시아: 이집트,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영국 (2,936명)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1.673명)

북미: 미국 (410명)

<sup>1</sup> 유엔 인구국(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https://esa.un.org/unpd/wpp/DataQuery/



설문지는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13-19세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설문 조사의 결과치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수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외출자제 및 자가격리조치 이전의 청소년들의 믿음(신념)과 행동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구팀으로부터

우리는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듯, 복음의 소망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 세대를 품고 섬기겠다는 심정의 울림을 느끼시길 기대합니다. 보고서의 모든 통계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고민과 방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호프(OneHope)는 모든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원한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태도와 행동

## 발견한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청소년 현황



세계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52%) 자발적으로 종교 경전을 읽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초대를 받을 경우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신들이 아는 크리스천들이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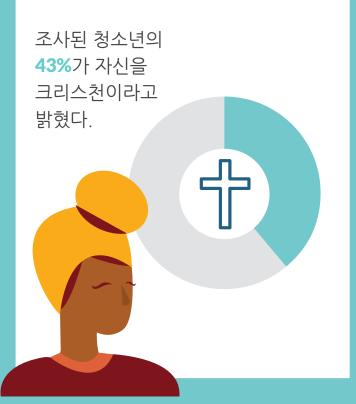
세계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52%) 모든 종교가 똑같이 타당한 진리를 설파한다고 믿는다. 비슷한 비율의 크리스천 청소년들도 이같이 응답했다.



세계 청소년 3 명 중 2 명은 신앙적 믿음 또는 영적 성장 과정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연구 참여 청소년 중 예배 출석, 경전 공부, 기도 생활을 가장 잘 지켜 행하는 집단은 무슬림 청소년들이다.



#### 크리스천 청소년





단 **7%**만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8 페이지 '독실한 크리스천 정의' 참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한 청소년 중 **40%**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기독교 믿음이 있고 성경 읽기와 기도가 생활화된 청소년들은 힘겹게 방황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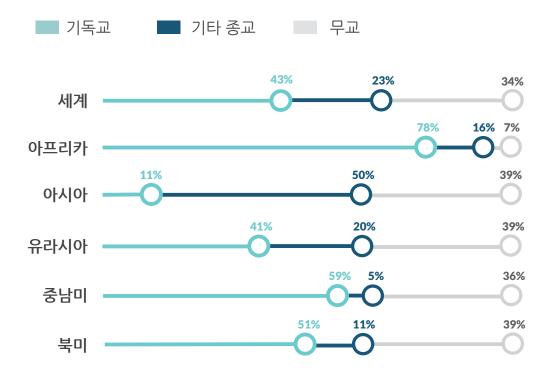
### 종교에 대한 태도와 행동

본 연구는 신앙과 종교가 오늘의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례 없이 종합적인 연구입니다.

청소년들은 영적인 성장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또 믿음 (신념)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을까요? 본 연구는 종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입니다.

#### 세계 청소년의 종교 정체성

세계 청소년 5명의 중 약 2명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고, 그 외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한 청소년은 4명 중 1명, 무교, 무신론 또는 불가지론을 믿는다고 한 청소년은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 소수의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

전통적인 기독교적 믿음(신념)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독실한 청소년들로 범위를 좁혀 살펴본 결과, 신앙과 관련한 가장 흥미로운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할 때, 그 의미는 개인과 환경,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호프(OneHope)는 독실한 크리스천을 분류하기 위한 믿음(신념)과 행동을 정의했습니다.

####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의 여섯 가지 특징

-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최소한 매주 기도한다.
- 최소한 매주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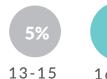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을, 여호와의증인 신도 또는 몰몬교 신도가 아닌,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밝힌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14 명 중 약 1 명이 독실한 크리스천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설문에 응한 청소년 전체 (가톨릭교인 포함) 표본의 43%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했지만, 그 중 단 7%만이 삶 속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믿음(신념)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서, 13-15세 청소년의 단 5%가, 16-17세 청소년의 6%가, 그리고 18-19 세 청소년의 8%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분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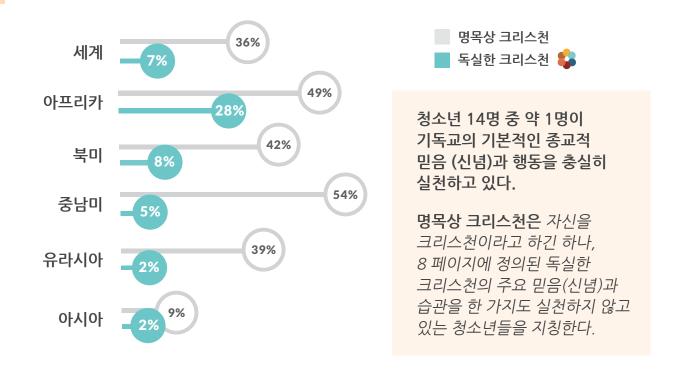
#### 독실한 크리스천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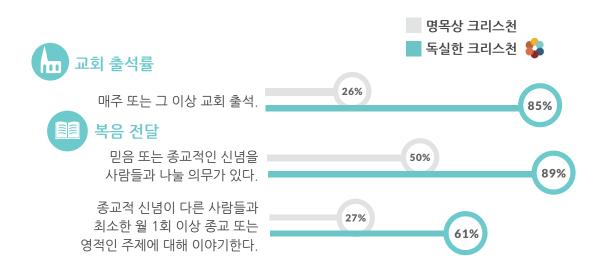


#### 지역별 독실한 크리스천 비율



#### 종교 행동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종교 행동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들에 비해 최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3배 이상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나눌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실제로 전도를 함으로써 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들에 비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비율도 2 배에 이릅니다.



### 독실한 크리스천의 장점

독실한 크리스천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갖는 부인할 수 없는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들의 고민과 방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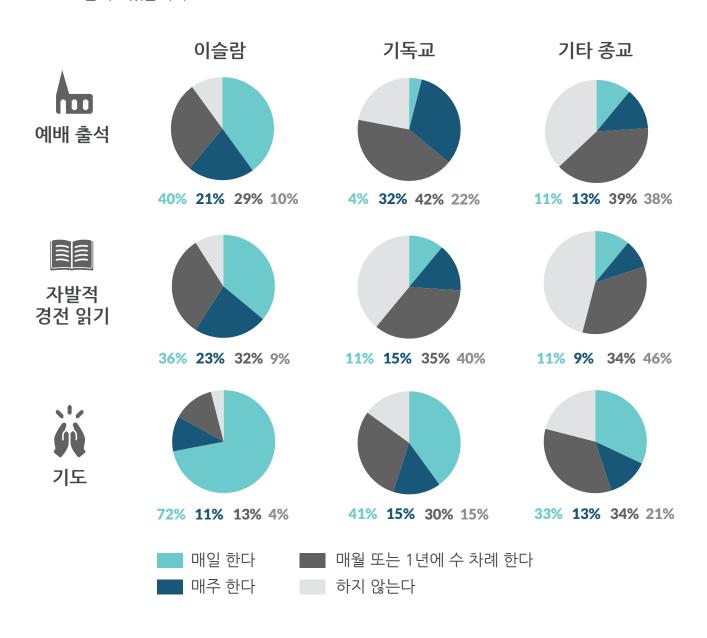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을 경험한 적이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최근 3개월 동안 우울, 자살 충동 또는 자살 시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습니다. 또 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거나 최근 동성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우리가 조사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 행동이나 우려되는 정신건강 문제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반면,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세계 청소년 평균에 매우 근접한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 세계 청소년의 종교 습관

우리는 믿음 공동체의 모임, 성경 읽기, 기도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종교 습관을 측정하였습니다. 무슬림<sup>1</sup>, 크리스천, 그리고 기타 종교<sup>2</sup> 청소년들의 각 부분별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sup>1</sup> 본 연구의 무슬림 표본 모집단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보다 적은 규모로 나이지리아, 인도, 케냐에도 분포합니다.

<sup>2</sup> 전 세계 청소년의 종교별 분포는 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경전 읽기



52%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종교 경전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예배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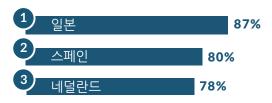
- 매주 또는 그 이상 출석
- 매월 출석
- 일년에 수 차례 이하 출석



전체 설문 참여 청소년 중 가장 종교적인 집단은 무슬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신앙적 믿음(신념) 이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대답한 무슬림 청소년은 10명 중 9명으로, 모든 다른 종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가장 잘 형성된 집단 또한 무슬림 청소년들입니다. 무슬림 청소년의 61%가 매일 또는 매주 사원에 간다고 답한 반면, 이 정도의 빈도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크리스천은 36%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 5명 중 1명은 교회에 아예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경전 읽기와 기도를 가장 꾸준히 하는 집단 또한 무슬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무슬림 청소년들이 매일 코란을 읽는 비율(36%)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비율(11%) 의 3배에 이릅니다. 크리스천 청소년 5명 중 2명은 자발적으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종교 경전을 가장 읽지 않는 국가



전혀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경전을 읽는 빈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42%의 청소년들이 매일 또는 매주 기도를 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가장 훈련이 잘 된 집단은 무슬림 청소년들로, 71%가 매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41%가, 기타 종교 청소년은 33%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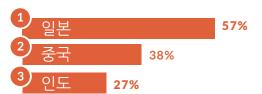
### 정체성으로서의 영성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41%**는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3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나는 크리스천을 한 사람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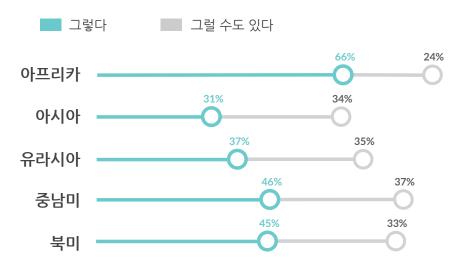


세계 청소년들은, 종교를 불문하고, 영성이란 개념에 대해 놀랄 만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3명 중 2명이 신앙적 믿음 (신념) 또는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거의 절반(44%)이 똑같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 가자는 초대를 수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41%가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가겠다고 답했고, 34%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진리를 찾고 있고, 따라서 장소와 상관없이 영적인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우리가 취합한 데이터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크리스천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 크리스천 청소년의 71% 가 그들이 아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크리스천을 한 사람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교회 출석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모든 것이 진리인 현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종교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세계 청소년의 반 이상(52%)이 모든 종교가 똑같이 타당한 진리를 설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크리스천 청소년은 53%이고, 이슬람, 불교, 힌두교와 같은 일부 종교 청소년들의 경우 그 비율은 이보다도 높습니다.

이는 청소년 세대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교와 지역을 막론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개방적인 자세가 공통적으로 감지됩니다. 실제로 신앙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낮은 게 아니라—훨씬 더 높았습니다(67%). 이 세대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청소년들은, 진리의 배타성, 즉 진리는 유일하다는 견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조차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30%)의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52% 가 모든 종교는 똑같이 타당한 진리를 설파한다고 믿습니다.

46%의 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종교나 영적인 주제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믿음(신념)을 공동체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절반(4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종교나 영적인 주제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약 10명 중 3명이 월 1회 이상 이와 같은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응답했고,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전도를 하는 비율은 전체 청소년 평균을 넘지 않습니다.

#### 영적인 주제로 대화하기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과 종교나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월 1회 이상) 청소년들의 비율.



연구 결과, **크리스천 청소년 중 44%**가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론

본 보고서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습관은 전혀 고착화된 것이 아니며, 청소년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함의 및 적용 포인트들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세대의 영적 개방성을 십분 활용하십시오.
 청소년 세대는 영적인 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며, 많은 믿지 않는 청소년들도 교회에 가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이미, 크리스천은 친절하고 자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라는 누구나 공감하는 전제로부터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신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인 동시에 원칙의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기독교 믿음(종교적인 신념)이 확고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훈련된 청소년들은, 명목상 크리스천이나 여타 청소년들에 견주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핵심 믿음(신념)과 실천을 구심점으로 청소년 세대를 제자화할 때, 청소년들이 삶의 여러 방면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 어떤 진리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진리의 배타성을 인정하거나 책임감을 갖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용과 포용이 대세인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복음의 배타적 주장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복음으로 살 때 겪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청소년들의 경험, 고민과 방황

## 발견한 핵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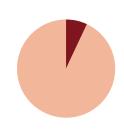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실제로 외로움, 우울, 심한 불안, 자살 생각 (suicidal ideation), 자살 시도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세계 청소년 4명 중 1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



14명 중 1명이 최근 3 개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성별로 볼 때,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에 비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자살 시도 비율도 거의 2 배에 달했다.



세계의 청소년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성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심지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3명 중 1명).

이 데이터는 미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sup>청소년</sup> 5명 중 1명이

최근 3개월 동안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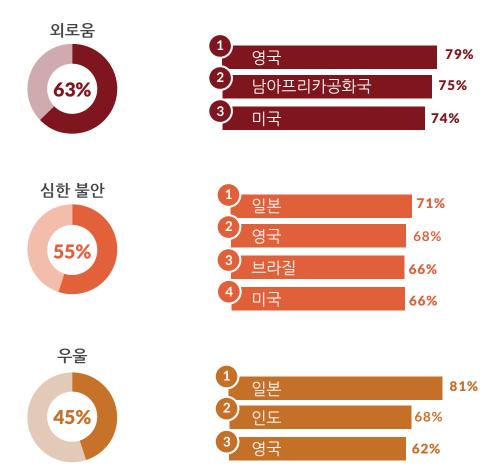
### 우려를 자아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청소년기는 여러 방면에서 힘겨운 방황의 시기입니다. 서투른 연애 감정과 쉽지 않은 또래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아정체성의 문제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특기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등 수많은 버거운 문제를 놓고 힘겹게 방황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했고, 고도의 불안을 경험한 청소년은 50% 이상,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도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sup>1</sup> 본 조사의 데이터는, 청소년들이 최근 3개월간 경험한 내용을 2020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집계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봉쇄와 격리 등을 가져온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영향이 확산하기 전 청소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 세계 청소년의 정신건강

나는 최근 3 개월 동안 \_\_\_\_\_ 을 느낀 적이 있다:



<sup>1</sup> 비고: 청소년들이 응답한 우울과 불안이 반드시 정신병적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용어를 해석하고 느낀 대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또 청소년들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충동을 경험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세계 청소년 4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는데, 3개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살 생각은 스치고 지나가는 일회성 생각에서부터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세계 청소년 4 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상위 국가별 비율



#### 자살 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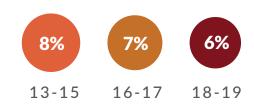
#### 자살 시도



자살 시도에서 특기할 사항은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이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보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1

물론 모든 자살 생각이 자살 시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14명 중 1명)의 청소년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개국에서는 10명 중 1명이 이와 같이 응답했습니다.

#### 연령별 자살 시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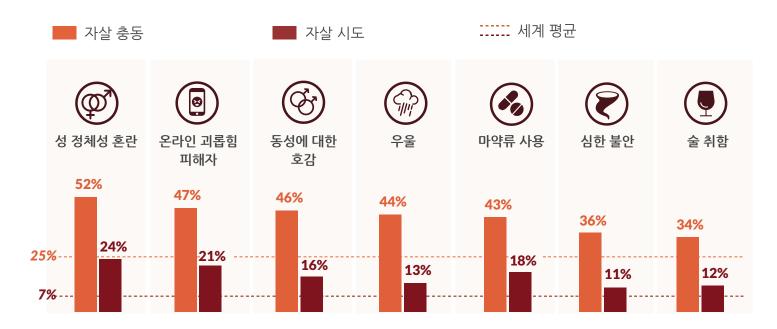


<sup>1</sup> 본 데이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한 것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조사에서 사용하는 병원 진료 기록이나 국가별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 자료들은 청소년의 자살 위험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적시하는데, LGBTQ (레스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 다양한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 문제, 약물 남용, 학교폭력, 불안 또는 우울 증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관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 정체성 혼란이나 동성에 대한 호감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이나 마약류 사용 또한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비율을 높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 위험과 연관관계를 갖는 7가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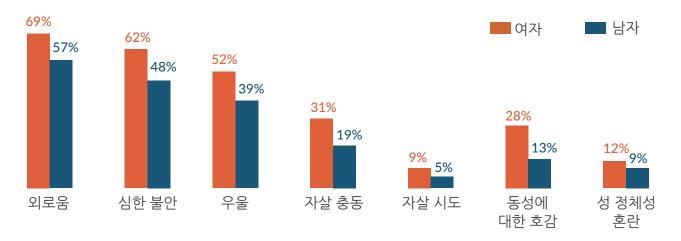
자살 시도 또한, 자살 충동처럼, 삶을 하찮게 생각하는 무모한 행동에서부터 계획된 구체적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자살 시도를 촉발하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한 일들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지고 쌓여서 자살 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본 조사에서 자살 시도로 집계된 데이터에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각기 처한 상황은 달라도, 누군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박한 행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심각성과 유행병적 파급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살 관련 데이터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숫자나 표본 비율이 아닌,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간과할 수 없는 큰 숫자입니다.

<sup>1</sup> CDC WONDER Online Database(미질병통제예방센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Underlying Cause of Death (원사인) 및 Multiple Cause of Death (다중 사인) 관련 2015-2017 자료. AmericasHealthRankings.org, 2020 자료.

####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 관점에서 더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론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들에 비해 신상을 더 자유롭게 털어놓는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남녀 간에 상당히 큰 격차가 포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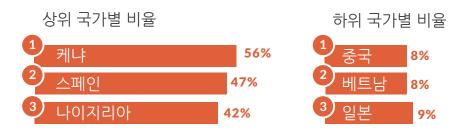


특기할 것은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는 비율은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좀 더 낮게 나왔지만, 여자와 남자 청소년들 간의 격차는 모든 항목에서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과 성 문제

청소년기는 성적인 실험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성적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활동성에는 광범위한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성활동성 여부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본 통계는 혼외의 성을 집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혼자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제외했습니다. 성활동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아시아 청소년들이 가장 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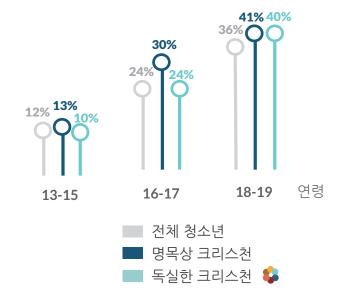
#### 국가별 성활동성



#### 연령별 성활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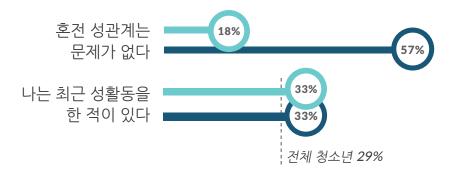
성활동성은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 (13-15세)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18-19세) 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최근에 성적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 연령에서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의 성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청소년은 거의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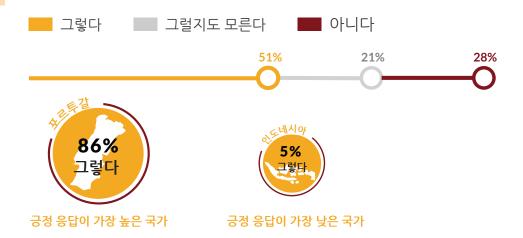


####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반응

일부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에 대한 도덕적 신념과 전혀 상관없이 성활동성을 나타냅니다. 평균적으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기타 종교 청소년들에 비해 최근에 성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성 관계가 혼인관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과 거의 동일한 성활동성을 나타냅니다



####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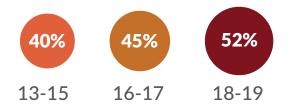
### 포르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거의 절반(48%)이 포르노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최근 3 개월 동안 포르노를 시청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56% vs 40%).

연령별 데이터 동향으로 볼 때,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이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포르노를 더 많이 시청합니다. 그러나 어리다고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3-15 세 청소년 5명 중 2명이 최근 3개월 동안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48%가 최근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연령별 포르노 시청 비율



####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반응



### 결론

설문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고민과 방황은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의 상황이 다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해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본질과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현실을 공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성 문제에 있어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성과 신성한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고, 성을 단순히 개인이 쾌락을 누리는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혼전 성관계가 잘못인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신념이 그들의 성활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이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가는, 보다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 세대에게 포르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포르노 시청이 연령과 종교를 불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조차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여자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여자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경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남녀 간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처한 남다른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여성들이 일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자화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십시오.

# 디지털 연결성과 그 영향

## 발견한 핵심 포인트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7시간 23분을**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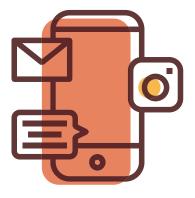


의 청소년이 매일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을 많이(10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SNS)가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64% 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하루 1 시간 이하로 사용한다.



### 온라인 활동 시간

지금까지, 오늘의 청소년 세대만큼 세계와 연결된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상에서 성장한,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했습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디지털 연결성이 청소년들의 시각과 믿음(신념),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라인상에서 보내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그들의 삶의 다른 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탐구했습니다.

조사 대상 20개국의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7시간 23분을 온라인상에서 생활합니다. 그 중 브라질의 청소년들이 9.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반대로 중국 청소년들이 5.5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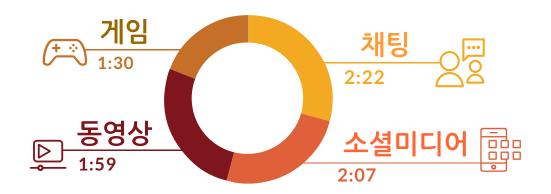
- 9:29 브라질
- 9:07 인도네시아
- 8:29 아르헨티나
- 8:28 나이지리아
- 7:54 러시아
- 7:40 케냐
- 7:35 미국
- 7:34 인도
- 7:22 멕시코
- 7:22 남아프리카공화국
- 7:19 콜롬비아
- 7:19 영국
- 7:08 포르투갈
- 6:50 베트남
- 6:45 스페인
- 6:43 이집트
- 6:42 네덜란드
- 6:29 루마니아
- 6:03 일본
- 5:24 중국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온라인 상에서 생활합니다.

### 온라인 활동

청소년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문자 또는 화상 채팅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 다음이 소셜미디어이고, 뒤이어 동영상 또는 영화 시청, 그리고 게임 순서입니다.

#### 활동별 시간



#### 상위 국가별 비율

온라인 활동별로 볼 때, 일부 국가의 청소년들이 세계 평균보다 긴 시간을 온라인 상에서 보냅니다.

#### 채팅



#### 소셜미디어



#### 동영상 시청



#### 게임



누적 온라인 사용 시간이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무엇에 주기적으로 접속하는지도 청소년들의 디지털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청소년들이 매일 하는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동영상 시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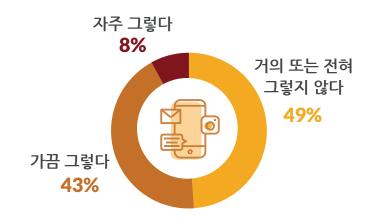
응답자의 94%가 매일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활동은 소셜미디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매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만, 64%는 1시간 이하로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해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청소년 5명 중 3 명이 소셜미디어가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때문에 가끔 또는 자주 슬픔, 불안, 또는 우울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94% 의 청소년이 매일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64% 의 청소년이 매일 1시간 이하의 기간을 소셜미디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슬픔, 불안, 또는 우울함을 느낀다.



### 인터넷의 영향력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습관과 시간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경도 사용자(0-4시간) 와 고도 사용자(10시간 이상)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렌즈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한 결과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관련하여, 인터넷 고도 사용자들이 경도 사용자들에 비해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고, 직업적인 목표도 금전 지향적이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의 경험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도 사용자들은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낮았고,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18%

#### 인터넷 사용과 삶의 경험

**경도 인터넷 사용자** (일 0-4시간 온라인 활동)

**고도 인터넷 사용자**(일 10시간 이상 온라인 활동)



목표

나는 미래에 창업을 하거나 내 회사를 경영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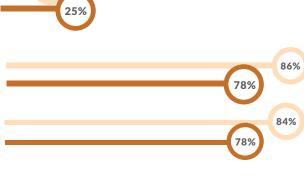
미래의 직업/직장생활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이다.



가조

나의 가정생활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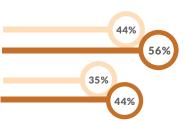


71%



신념

혼전 성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른 성이 되기 위해 몸을 바꿔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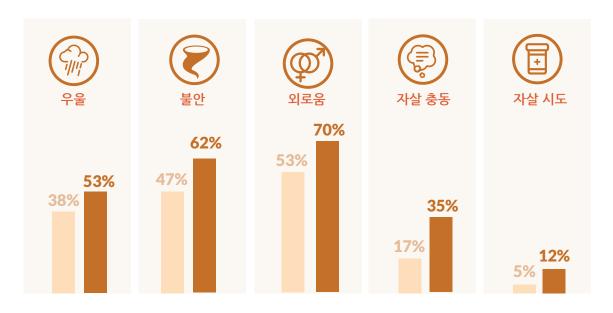


우리는, 온라인 연결성과 특정 문화적 입장 및 의견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 인터넷 사용자는, 혼전 성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른 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꿔도 괜찮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더 폭넓은 세계관과 윤리관을 접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 인터넷 사용과 청소년의 고민과 방황

- **경도 인터넷 사용자** (일 0-4시간 온라인 활동)
- **고도 인터넷 사용자** (일 10시간 이상 온라인 활동)

나는 최근 3개월 간 \_\_\_\_\_ 을 느낀 적이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패턴과 그들의 실생활을 상호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놀라운데이터상의 상관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고도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더많이 고통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경도사용자들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고도 사용자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당연히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들이 겪는 고민과 방황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삶에 대한 절망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정신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 결론

청소년기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외의 수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혼재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조합으로 연결된 수많은 요인들에 더해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대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여기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소개합니다.

- 동영상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억하시죠?
   청소년 94%가 매일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 매력적인 매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소셜미디어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매일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새 소식들을 확인하긴 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습니다(64%가 1시간 이하 할애). 나아가 청소년들이 느끼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긍정과 부정으로 상반됩니다. 청소년 세대가, 자신들의 디지털 행태가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분별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컴퓨터 앞에 앉은 청소년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제가 대화 속에 등장할 때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체성과 관계

## 발견한 핵심 포인트

청소년의 반 정도는 성별 (젠더)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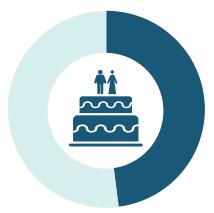
나머지 절반은 성별(젠더)이 개인의 느낌 또는 성적인 호감에 따라 개인이 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계 청소년
48%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sup>청소년</sup> **10명 중 1명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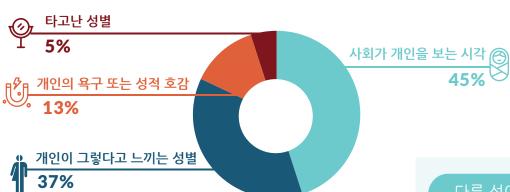
청소년들은 주변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82%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응답했고 비슷한 수의 청소년들이,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 선택사항으로서의 성 정체성

청소년의 정체성과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연구 프로젝트도 모든 관련 영역을 다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기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한 몇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그들이, 성과 결혼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인으로 성장할까요? 모두 복잡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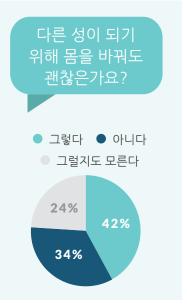
전 세계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성별(젠더)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졌다고 응답해,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은 성별이 느낌이나 성적인 호감에 따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성별을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주관적인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별(젠더)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_\_\_\_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성별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 5명 중 2명이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몸을 바꾸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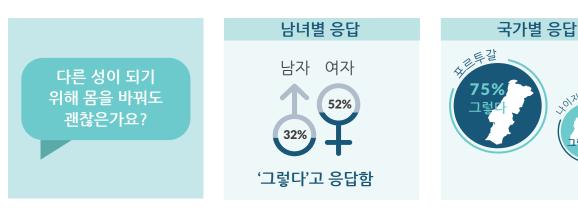


#### 지역별 젠더(성별)에 대한 생각



젠더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생각은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남미의 경우, 성별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수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두 배에 근접합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은 성별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청소년 4명 중 3명이 성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성 정체성과 변화



많은 청소년들이 주관적 젠더라는 개념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성 전환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10%가 최근 3개월 동안 성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5%가 지금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일 때 더 '나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들에 비해 성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고(12% vs 9%), 이 주제 전반에 걸쳐 남자 청소년들과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절반 이상(59%)의 여자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느낌이나 욕구라고 응답했고,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남자 청소년들(42%)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과 다른 성이 되기 위해 몸을 바꿔도 괜찮다고 답할 가능성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52% vs 32%).

이지리아

**78%** 

# 종교의 영향

종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요소입니다. 젠더에 대해 가장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슬림 청소년들입니다. 무슬림 청소년들은 62%가 성별은 타고난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크리스천 청소년이 50%, 기타 종교 청소년이 41%였습니다. 성별은 개인의 느낌이나 성적 호감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자신이 무교라고 답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63%).

그러나 믿음(신념)이 있고 성경 읽기와 기도가 생활화된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견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명 중 1명만이 다른 성이 되기 위해 몸을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반응



### 동성에 대한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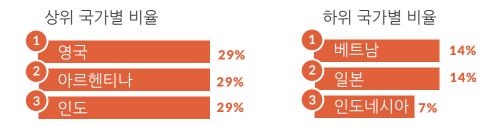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동성에 대해 호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청소년 5명 중 1명이 최근 3개월 동안 동성에 대해 성적인 매력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명목상 크리스천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응답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5 명 중 1명이 최근 동성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동성에게 ' 호감을 느낀 적이 있다. '



#### 국가별 동성에 대한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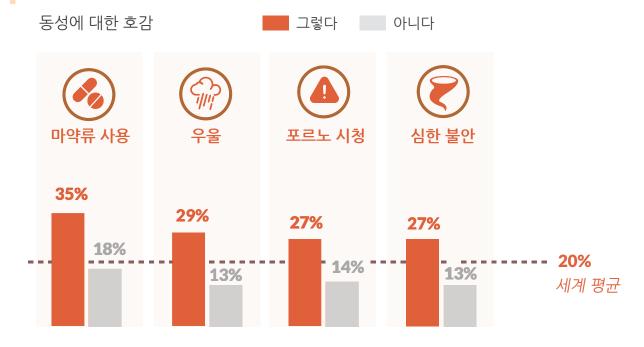


본 연구에 사용된 기타 변수들에 견주어 이 주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들에 비해 동성에게 매력을 느낄 확률이 두 배나 됩니다(28% vs 13%). 청소년의 가정생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생활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30% vs 18%).

종교가 일종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종교가 없다고 한 청소년들에 비해 동성에게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낮습니다(18% vs 25%). 동성에 대한 호감은 이슬람 청소년(13%)과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12%) 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동성에 대한 호감은 다른 행동들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거의 절반(46%)이 동성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약류 사용, 우울, 심한 불안, 그리고 포르노 시청 등도 동성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응답할 확률을 거의 두 배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 동성에 대한 호감과 상관관계를 갖는 4가지 요소



# 결혼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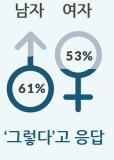
우리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뿐 아니라, 연애를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결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조사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57%)이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라고 믿는 반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확실히 모른다(27%) 또는 그렇지 않다(16%)고 응답했습니다.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확신은 이보다 더 빈약합니다. 청소년의 절반 (48%)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40%) 보다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해 남자 청소년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은 결혼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더 낮고(53% vs 61%),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58% vs 38%).

문화권에 따른 차이도 컸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언약인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가장 많은 수의 브라질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 성별에 따른 의견





#### 국가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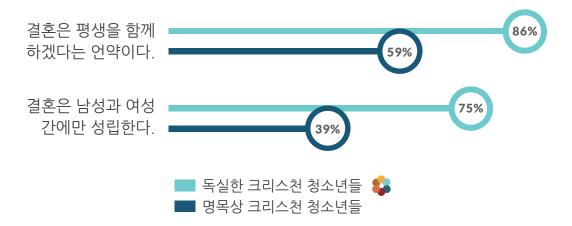


'아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적은 국가

성경적 결혼관은 이제 소수 의견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으로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언약이며, 혼전 성관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명중 1명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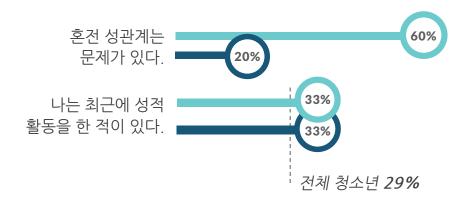
청소년 7명 중 1 명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반응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별개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역시 혼전 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세계 청소년 평균(51%)과 같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실제로 기타 종교의청소년들에 비해 최근 3개월 동안 성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대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34% vs 26%).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성경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최근 성활동 여부에 대한 응답은 다른 청소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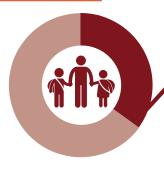


### 친구 및 가족 관계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82%가 가정생활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족, 문화, 상황 등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82%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57%의 청소년이 양 부모 가정에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35%의 청소년이 편부모 또는 다른 가족과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통계가 반대로 나온 국가는 인도입니다. 전체의 반(47%)에 가까운 인도 청소년들이 편부모와 살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양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청소년들은, 우리가 조사한 20개국 청소년들 중 가장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에 달하는 인도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응답한 것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요한 대화의 빈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부모님과의 실질적인 친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부모님과 가끔 또는 자주 이야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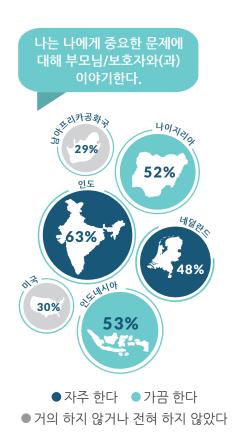


세계 청소년의 81%가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 부모님과 가끔 또는 자주 이야기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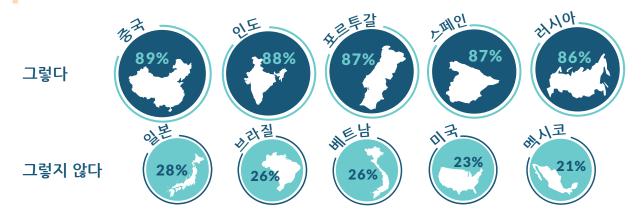
청소년 5명 중 1명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에도 역시, 63%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한다고 응답한 인도 청소년들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인도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을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였습니다. 미국 청소년 3명 중 1 명이 가정생활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82%가,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또한 서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82%가,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일부 국가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와 성별이 청소년의 친구관계나 가족관계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친구관계, 가정생활, 그리고 부모님과의 진지한 대화 유무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 남녀와 종교를 불문하고 유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결론

정체성과 관계의 문제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경험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의 글로벌화된 청소년 세대의 특징을 한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합한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접근하는 지침이 되는 새로운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 세대는 성 정체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성별(젠더)은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반은, 개인의 느낌이나 성적 욕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과, 이 주제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왜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 선택인지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결혼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남녀 간의 언약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결혼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헌신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는 다른 시각과 경험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덜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고, 성 정체성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줄 뿐, 그 근거 또는 그와 같은 현상에 기여하는 기타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좀 더 친밀한 거리에서, 이 주제에 대한 여자 청소년들의 생각과 경험, 고민과 방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인도 청소년들이, 편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의 구성이나 가정 내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영향 인자와 조언의 창구

# 발견한 핵심 포인트

### 삶의 의미

옳고 그름 또는 삶의 의미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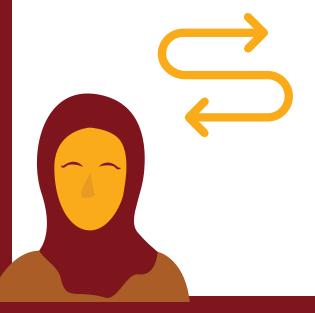




## 젠더(성별)와 성 문제

젠더와 성 문제에 대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셜미디어와 친구이다.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청소년들은 응답했다.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출석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선택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출석 교회 목사님과 성경에서 조언과 지침을 구할 가능성이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에 비해 4배나 높다.

### 영향 인자와 조언의 창구

청소년들은 많은 것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이 저절로 생기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뢰하는 안내자와 조언자는 누구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고민할 때, 청소년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청소년들이 중요한 믿음(신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 퍼센트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 형성에 대한일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들은 가족을 신뢰합니다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주로 가족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의미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셜미디어가 2위, 친구/ 또래가 3위를 차지했고, 선생님/ 상담전문가, 종교 지도자/종교 관련 글, 그리고 오프라인 미디어는 훨씬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다른 주제 관련 질문들도 많지만, 인생의 궁극적 목표나 도덕성의 근원에 대한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 삶의 의미에 대한 대화



- 1 가족 구성원 41%
- **2** 온라인 / 소셜미디어 **20%**
- 3 친구 / 또래 **19%**
- 4 선생님 / 상담 전문가 **7%**
- **5** 오프라인 미디어 **7%**
- **6** 종교 지도자 / 종교 관련 글 **7%**

### 옳고 그름에 대한 대화



- 1 가족 구성원 50%
- 2 친구 / 또래 16%
- ③ 온라인 / 소셜미디어 **14%**
- 4 선생님 / 상담 전문가 **9%**
- 5 종교 지도자 / 종교 관련 글 **7%**
- 6 오프라인 미디어 5%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청소년기가, 길잡이 믿음 (신념) 체계인 세계관이 형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집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남미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중남미 청소년 5명 중 3명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받기 위해 가족을 찾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낮은 지역에서조차, 청소년들은 제시된 답안 중에서 가족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 국가별 가족의 영향

####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주로 가족에게서 얻는다.

상위 국가별 비율

65% (63%

하위 국가별 비율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 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에서조차, 주로 가족에게 옳고 그름(52%)이나 삶의 의미(42%)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가정 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가족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가장 신뢰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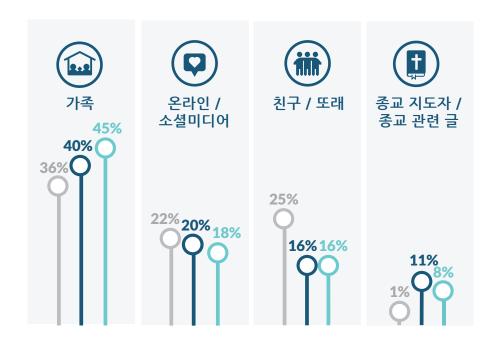
크리스천 청소년 10명 중 약 1명이 주로 목사님이나 성경으로부터 삶의 의미에 대해 조언을 얻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종교에 따라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는 대상도 약간씩 다릅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삶의 의미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가족을 찾는 경향이 더 많았고, 소셜미디어 또는 친구나 또래를 찾는 비율은 약간 적었습니다.

#### 종교별 영향력

나는 주로 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다.

무교 기타 종교 크리스천



### 또 다른 대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질문한 또 다른 주제는 젠더(성별)와 성 관련 문제들입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해, 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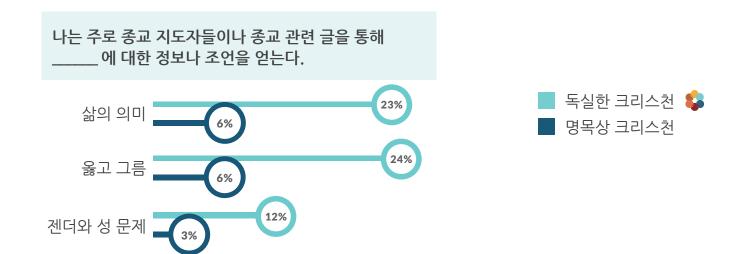
이 주제에 관한 한 조언의 창구는 인터넷입니다.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이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와 조언을 구한하고 답했습니다. 친구 또는 또래가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이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종교 관련 글은 최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온라인 정보 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젠더와 성 문제에 관한 한, 문화의 소리가 성경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젠더(성별)와 성 문제에 대한 대화



- ① 온라인 / 소셜미디어 36%
- 2 친구 / 또래 23%
- **3** 가족 구성원 **20%**
- 4 선생님 / 상담 전문가 **11%**
- 5 오프라인 매체 6%
- 6 종교 지도자 / 종교 관련 글 4%

그러나 믿음(신념)이 있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생활화한 독실한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청소년들은 영적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명목상 크리스천 청소년들에 비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관련 글을 통해 조언을 얻는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4배나 높았습니다.



## 무엇으로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을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기존의 종교적 믿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지, 조금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은, 기도응답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믿음을 바꿀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모님이나 목사님 같은 권위 있는 인물과의 대화는 순위가 훨씬 낮았고, 제일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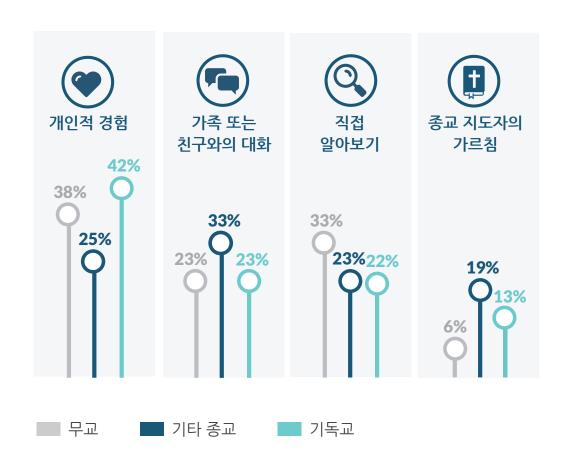


- 1 기도응답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 37%
- 2 직접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알아보기 26%
- ③ 부모님과의 대화 **18%**
- 4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 **12%**
- 5 친구와의 대화 8%

인도의 경우, 유일하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 청소년의 거의 절반 (46%)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인적인 경험(15%)의 순위는 훨씬 낮았습니다.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은 특히 직접 알아보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 경험이 있을 때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겠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더 높았습니다. 전체 중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무슬림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슬림 청소년은 아래 "기타 종교" 분류에서 가장 큰 그룹입니다)

어떤 종교적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_\_\_\_이다.



### 결론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서 조언을 구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가족의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연구를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관한 한,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대상이 가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 성경과 교회는 다른 인자들에 비해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특히 젠더와 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또래들이 전파하는 문화의 소리가 커지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문화가 이 중요한 문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이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까요?
- 청소년들의 삶에서 개인적인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자신만의 신앙적 경험을 갈망합니다. 심지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신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그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 롭 호스킨스(Rob Hoskins) OneHope 대표의 편지

#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이 연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탈-진실(post-truth) 문화 시대에 거룩한 세대를 세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닌, 필연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장하면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같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 보고서는 그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직면하는 도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확실히 드러났듯, 문화로 혼탁해진 젠더와 성 문제 같은 주제에 관해 우리 청소년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수의 청소년들이 힘겹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고, 또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바다와 같은 현실이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 생물학적 가족이든 영적 가족이든, 가족을 가장 먼저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의미를 주는 목적에 대한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사님 또는 교회에서 찾지 않고 구글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들이 겪는 혼란은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의심하는 도마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5-6 에서 도마는 중요한 인생 질문을 던집니다.

####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청소년들이 무서운 장악력과 설득력을 지닌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을 초월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도마의 때와 똑같이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의심과 혼란과 질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뜬구름에 있지 않다는 것, 이 세상이 제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곳이라도 예수님의 답변에서 진리를 찿고 정확한 방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 원호프(OneHope) 소개

원호프는 전세계 현지 교회, 목회자, 정부 등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16 억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원호프는 섬기는 국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연령과 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성경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원호프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을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onehope.net

### 조사 방법

본 연구는 20개국 13-19세 청소년 8,3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각 국가별로 약 400여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표 표본을 사용하여, 백분율 결과가 실제 13-19 세 청소년 인구 백분율의 5%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95% 신뢰도의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했습니다. 다국가 지역과 전세계 기준으로 볼 때, 신뢰도는 더 높고 오차 범위는 더 낮았습니다.

다섯 국가(중국, 이집트, 인도, 일본, 베트남)에서는, 종교기반 분석과 비교를 위한 유의미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10%의 응답자가 크리스천이 되도록 쿼터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도 크리스천 또는 무슬림에 대한 최소 10% 목표 표본 크기가 충족되거나 근사치를 달성했습니다. 케냐에서도 응답자의 40%를 여자 청소년으로 구성하기 위해 샘플링 쿼터를 사용했습니다.

연구설문지의 배포는 Centiment Research란 기관이 맡았습니다.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간단한 주의 점검 질문에 오답을 내는 응답자는 실격 처리했습니다. 이 연구설문지는 70개의 기본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지역별로 특별 관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해당 지역별 맞춤 질문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 데이터 수집

본 연구 데이터는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수집되었습니다. 우리는 본 연구가 외출금지와 자가격리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전까지의 청소년들의 믿음(신념)과 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출금지와 자가격리가 본격화된 이후라면, 온라인 활동 시간이나, 우울 또는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지표를 포함한 정보 항목에 영향이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데이터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의 진원지로서 가장 봉쇄가 빨리 이뤄진 곳이므로 특별한 예외였습니다.

국가	표본 크기	데이터 수집 일
아르헨티나	420명	2020년 2월 27일 - 3월 2일
브라질	420명	2020년 2월 27일 - 3월 11일
중국	420명	2020년 2월 27일 - 3월 6일
콜롬비아	413명	2020년 2월 27일 - 3월 2일
이집트	420명	2020년 2월 27일 - 3월 9일
인도	412명	2020년 2월 28일 - 3월 17일
인도네시아	420명	2020년 2월 27일 - 3월 7일
일본	425명	2020년 2월 27일 - 3월 23일
케냐	435명	2020년 2월 25일 - 3월 27일
멕시코	420명	2020년 2월 27일 - 3월 2일
네덜란드	419명	2020년 2월 27일 - 3월 8일
나이지리아	420명	2020년 2월 24일 - 3월 20일
포르투갈	419명	2020년 3월 7일 - 3월 18일
루마니아	420명	2020년 2월 28일 - 3월 13일
러시아	418명	2020년 2월 27일 - 3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420명	2020년 2월 24일 - 3월 7일
스페인	420명	2020년 3월 7일 - 3월 13일
영국	420명	2020년 2월 24일 - 3월 3일
미국	410명	2020년 2월 24일 - 2월 29일
베트남	423명	2020년 3월 13일 - 3월 26일

### 용어

#### 독실한 크리스천

여호와의증인 신도 또는 몰몬교 신도가 아닌,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청소년들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들을 의미.

-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 매일 또는 매주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
- 매일 또는 매주 기도한다.

#### 명목상 크리스천

스스로를 여호와의증인 신도 또는 몰몬교 신도가 아닌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청소년들로, 독실한 크리스천이 보여주는 신앙적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의미.

#### 기타 종교

스스로를 불교도, 힌두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또는 여타 종교를 믿는 신도라고 밝힌 청소년

#### 무교

스스로를 무신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라고 밝혔거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 질문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연락처: research@onehope.net



글로벌 청소년 문화, 조사 보고서 Copyright © 2021 by OneHope, Inc. 600 SW Third Street Pompano, FL 33060 onehope.net

〈성경 구절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인용함〉

Suggested citation: OneHope. (August 2020). Global Youth Culture, Global Report. www.globalyouthculture.net





